민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전환키로

3월말~4월초 전대…경선 룰 설이후 논의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임기는 내년 6월

민주당은 임시 전당대회를 오는 3월말이나 4월초에 치르고 지도부 구조는 현재의 순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도부 경선 룰은 설 이후에 본격 논의하기로 했으며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 임기는 차기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6월까지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대위)는 6일 전체 회의를 개최,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성격과 지도부 임기와 관련, 임시 전당대회를 치러 내년 1월까지로 하는 방안과 내년 6월까지 하는 방안,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 오는 2015년 4월까지 하는 방안들이 논의됐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는 당내의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오는 10월 재보선과 차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한, 전대위는 지도부 구조를 현재의 순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대표의 권한이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훨씬 강화된 구조며 과거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체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특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의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전대위 관계자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는 구조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기에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의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지를 이끌어 내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지도부 구조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결정됨에 따라 지도부 경선은 당권 그룹과 최고위원 그룹의 두 단계로 나뉘어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 진입을 노리고 있는 당내외 인사들은 1부리그(당권 도전)과 2부리그(최고위원 도전)을 놓고 암중모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임시 전당대회는 전국 순회 경선으로 치러지지 않고 전당대회 날짜를 정해 당일 지도부를 선출하는 '원 샷' 방식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지도부 체제와 전당대회 시기 등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하는 등 논란이 많았으나 전대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이제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모바일 경선' 집중 검증 이뤄질 듯

대선평가위, 핵심의제 결정

민주통합당의 지난 18대 대선 후보 선출에 이용됐던 모바일 경선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대선 평가의 핵심의제인 모바일 경선에 대한 평가 방향을 결정했다.

평가위는 우선 모바일 경선의 취지는 정당했는지, 아울러 목표는 명확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 선거인단의 지향점이 국민 대표성에 있었는지, 아니면 온라인 대표성에 머물렀는지도 중점 검토키로 했다.

모바일 경선이 선거인단 모집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했는지, 그렇지 않고 조직동원에 머물렀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제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모바일 경선 불복 사태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과연 경선룰이 경선 후보들이 승복할 정도로 합의된 상태였는지도 파헤치기로 했다.

대선평가위는 모바일 경선 검증과는 별도로 앞으로 민생·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 평가도 착수한다.

또 종합적인 대선 평가를 위해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당무위원, 광역의원, 의원 보좌관, 외부 학자 및 연구자 등 1300~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6일 인천시 연평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선언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연평도서 비대위…'안보행보' 박차

'한반도 평화안보선언' 채택…4자 긴급회동 제안

민주통합당은 6일 연평도를 방문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안보선언'을 채택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설훈 비대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연평도를 방문,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안보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4자 긴급회동'을 제안하는 한편, 문 비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성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안보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연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상당한 이유 중 하나가 안보 불안 의식이었다"며 "민주당은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은 민주당을 아직도 안보 불안 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며 "오늘 특위 설치를 시발로 철두철미한 안보 행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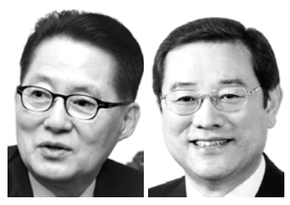
문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다. 두 열차를 세워야 한다"며 남북 대화 재개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그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선 "조준사격이었고 민간인 2명이 사살됐다는 점에서 도발에 준하는 사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의 북핵 관련 여야 긴급회의 제안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박 당선인과 여당 측에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4자 긴급회동을 비공개 제안했던 것과 관련, 문 비대위원장은 "누가 먼저 (제안)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을 위해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핵실험 대응 조치를 같이 의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으뜸"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이용섭 의원 '백봉 신사상' 수상



민주통합당 박지원(목포·사진 왼쪽)·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2012년 백봉 신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의 '백봉 신사상' 수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백봉 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국회부의장을 지낸 '백봉 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됐으며, 이번이 14회째다.

매년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리더십, 업적 및 성과, 교양과 지성, 모범적 의정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1'를 선정해 백봉 신사상을 수여한다.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강창희 국회의장)는 지난 1월16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출입 정치부 취재기자 2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베스트 11'를 선정했다.

올해 '베스트 11'에 뽑힌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출신인 박지원·이용섭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이한구·진영·황우여 의원, 민주당 문재인·문희상·박기춘·신경민·원혜영·정세균 의원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영선 "박용만 회장님 잘 하셨네요"

대기업 '빵집 논쟁' 속 두산그룹 철수 지침 칭찬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제과업종과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일부 대기업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두산 박용만 회장을 칭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빵집 논쟁이 한창이네요. 그런데 이런 재벌회장도 있으세요. 두산 박용만 회장님!"이라고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어 "(박 회장은) '빵집에서 철수하라' 지침을 오래 전 내리셨데요"라며 "그 이유를 질문했더니 '이미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옳든 그르든 우리의 행동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한다'는 생각에서라고요"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의 로비 창구"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재벌기업 사주의 국회 출석 회피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재벌에게는 '저승사자'로 통할 정도로 재벌기업에 비판적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 민주당, 서울경찰청장 고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낸 박범계 의원은 "김 청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형법상 직권 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 청장이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관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해선 안 되는데 사실상 그날 발표 지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國家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6기)	광주교육대학교(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월,목 야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3.9.(토)	2013.1.24.(목)~3.9.(토)
수업기간	2013.3.8.(금)~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원서 접수 기한 :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답고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nugpa.kr) 참조 바람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원, 경영인 등
○ 원서 접수 기한 : 2013. 2. 22.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3. 관리자과정
○ 모집대상 :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 접수 기한 : 2013. 2. 22.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 (062)530-5196, FAX : (062)530-2266
– 홈페이지 : http://cnugpa.kr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NPL투자
▶낙찰 받기가 유리하다
▶대출이 많이 된다
▶소자본으로 가능하다
▶투자금 회수가 빠르다
▶양도소득세가 없다
▶수익률이 높다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경매비법 전수
▶회비:개인 1,100만원
공동 550만원
▶혜택:1인1물건 낙찰 보장
교육/임장비등 일체
평생 경매 상담 무료
사무실 사용 등등
(주)오천경매 H.010-4667-9300